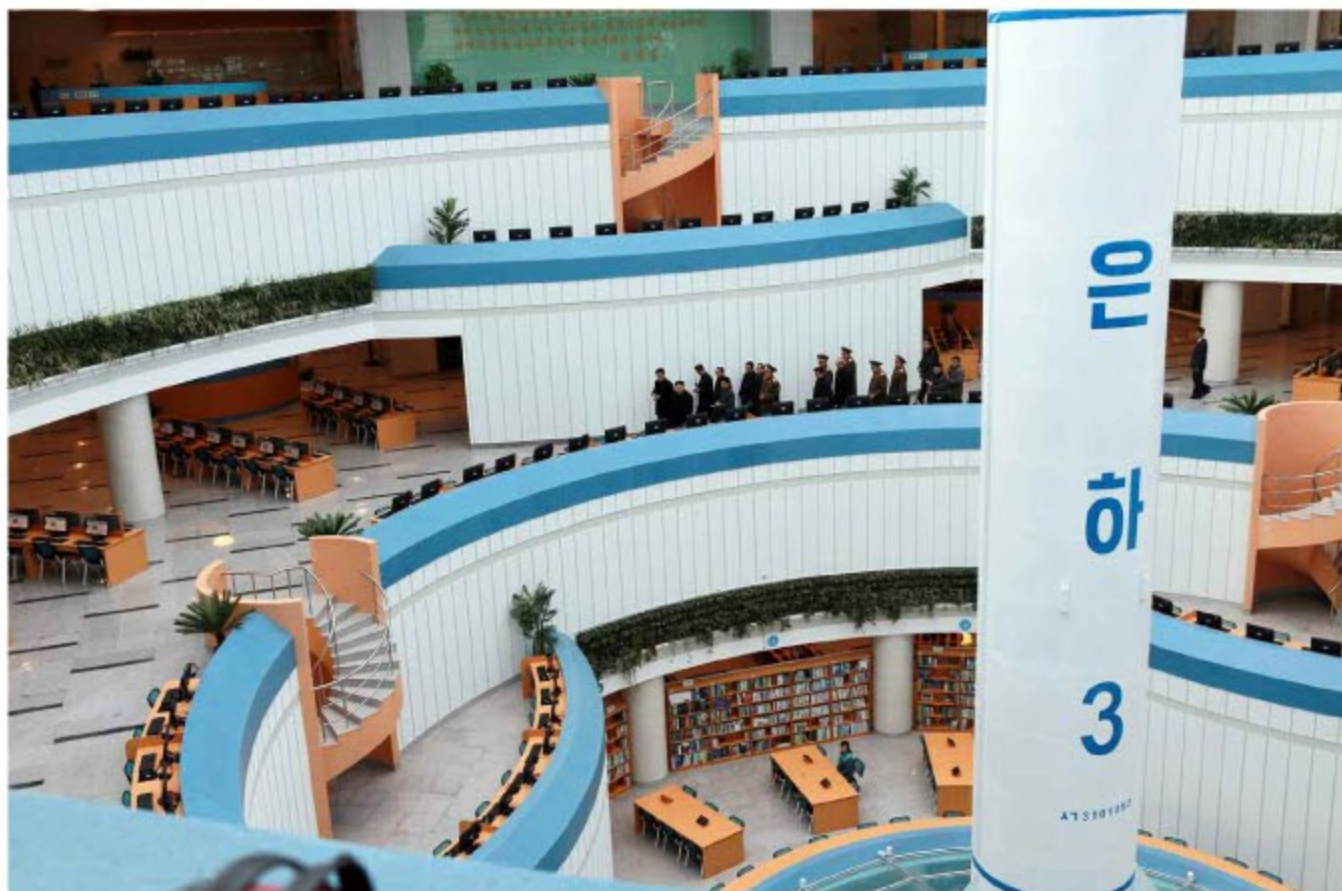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1 번 에 서 계 속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온 나라가

총정의 맹세로 설레이는 뜻깊은 설날全民 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전당은 위대한 우리 당이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 주시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찬바람부는 건설현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당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누구나 지식의 람을 쌓을수 있는 웅장 화려한 과학기술의 전당을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전당의

구석구석마다에 뜨겁게 어려여있다. 과학기술전당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다기능화된全民학습의 대전당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건축예술의 본보기이다.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누구나 배울수 있게 꾸려진 세계최상급의 과학기술 보급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또 하나의

배움의 전당을 가지게 되었다. 평양의 명당자리에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 예술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대결작품이며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표본, 국보적인 건축물이다.

3 번 으 로 계 속

